

‘서복’ 이용주 감독 “복제인간은 소재, 키워드는 두려움”

12월 개봉...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 연출

‘복제인간’ 박보검·공유 감성 브로맨스 예고

전국이 첫사랑 신드롬을 일으킨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공유, 박보검 주연의 영화 ‘서복’으로 돌아온다.

27일 영화 ‘서복’의 제작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공유, 조우진, 장영남과 이용주 감독이 참석했다.

군에 입대한 박보검은 사진 녹화 영상으로 깜짝 등장했다.

영화 속 인물을 소개한 박보검은 “‘서복’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재미와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사했다.

영상을 본 공유는 “(박보검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 아니냐”라며 “촬영할 때 같이 고생했는데 영상을 보니 마음이 편하다. 어차피 농사는 박보검이 잘 짓고 있다. 저희가 잘 수확해 보겠다”고 말했다.

영화는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박보검)을 극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이 서복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감독은 중국 진나라 시절 진시황제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려 떠난 서복의 이야기

에서 모티브를 얻어 ‘죽지 않는’ 복제인간과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로드무비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극과 극의 상황에 놓인 두 남자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삶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복제인간을 소재로 다룬 점도 눈에 띈다. “이게 과연 스크린에 어떻게 옮겨질까 궁금했다”(공유), “‘서복’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전에 없던 캐릭터”(박보검) 등 주연 배우들은 이제껏 한국영화에서 다루진 적 없는 신선한 캐릭터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한다면 두려움이다. 결국은 유한한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라며 “두려움에서 시작해 영생을 떠올렸고 소재를 생각하다 복제인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인간이 소재지만 중요한 테마는 아니”라며 “장르성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고 짚었다.

‘복제인간’이라는 신선한 캐릭터와 압도적인 비주얼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공유와 박보검의 첫 연기 호흡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공유는 ‘서복’에서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

역을 맡아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기현’의 예민하고 날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등 외적인 변화도 감행했다.

전직 요원에 걸맞은 거침없는 소화한 공유는 ‘서복’을 만나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도 그린다고 밝혔다.

공유는 “시나리오에서 날카로운 주제 의식이 돋보였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가 탄생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뇌하고 고민의 흔적이 느껴질 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고민이 들게끔 하는 작품에 통하는 것 같다”며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이 관심이 갔다”고 부연했다.

이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공유씨와 박보검씨 두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며 “현장에서 공유씨 생각하면서 고민 대사도 많다. 만족스러운 싱크로율이었다”고 했다.

박보검은 ‘서복’으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다.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 역에 대해 박보검은 “이전에 없었던 캐릭터다. 영화 속에서 ‘서복’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연기했다”고 떠올렸다.

난생 처음 실험실 밖으로 나와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된 ‘서복’의 천진난만한 표정부터 자신을 노리는 세력을 향한 매서운 눈빛까지 시시



각각 변하는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공유는 “관객들이 생각하는 박보검의 선한 눈매와는 상반되는 눈빛이 서복에서 나올 것”이라며 “악역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박보검의 연기 변신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감독도 “동물적인 배우다. 순간적인 집중력과 에너지 때문에 촬영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며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박보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서복 캐릭터에 대해서는 “원형과 똑같지는

않고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복제 인간이다. 사람보다 시간이 빨리 가지만 끝은 없는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조우진이 ‘서복’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정보국 요원 ‘안부장’ 역을 맡아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장영남이 ‘서복’의 탄생과 성장을 곁에서 지켜본 책임 연구원 ‘임세은’으로 분한다. 박영은이 ‘서복’의 소유권을 지닌 서인그룹의 대표이사 ‘신학선’ 역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배가한다.

12월 개봉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재발매한 6년 전 앨범 ‘빌보드200’ 12위

내달 20일 새 앨범 'BE(Deluxe Edition)' 세계 동시 공개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재발매한 6년 전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 상위권에 데뷔했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스쿨 러브 어페어(Skool Luv Affair)'가 31일 자 빌보드 200에서 12위로 진입했다.

'스쿨 러브 어페어'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4년 2월 발매한 음반이다.

같은 해 5월 원 수록곡 10곡 이외에 '미스 라이트', '좋아요' 리믹스 버전 등이 담긴 에디션이 추가 발매됐다.

이 앨범은 절판돼 구매가 어려웠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조사한 '방탄소년단 관련 절판 또는 품절된 공식 앨범 및 DVD 상품 중 다시 만나고 싶은 영상출판물 및 음반' 설문에서 1위를 차지, 최근 재발매됐다.

2014년 앨범이 '빌보드 200'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건, 여전히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새로 유입되는 증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

마이트(Dynamite)'는 빌보드 또 다른 메인 차트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장기집권 모드에 들어갔다.

31일 자 '핫100' 차트에서 7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 5위보다 2계단 떨어졌지만, 9주째 톱10에 진입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또 방탄소년단은 세계 인기곡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동시 정상을 차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한국시간) 새 앨범 'BE(Deluxe Edition)'를 세계에 동시 공개한다.



코요태, 린다G 프로듀싱 '삭제' 발매

90년대 복고적인 신스 테마·하우스 리듬 섞은 댄스곡

국내 최장수 흥성 그룹 '코요태'가 신곡 '삭제'로 돌아온다.

소속사 KYT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코요태의 신곡 '삭제'가 발매됐다.

'삭제'는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프로젝트 흥성그룹으로 복귀한 린다G(이효리)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삭제'는 린다G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동시대를 함께했던 코요태에게 선물로 준 곡이다.

90년대 복고적인 신스 테마와 하우스 리듬을 섞은 댄스곡으로, 레트로 감성을 물씬 풍기며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가사를 담고 있다.

코요태는 '삭제'로 가을을 겨냥해 기존 코요

태 스타일인 마이너풍의 하우스댄스를 선보인다.

1998년 데뷔한 코요태는 신나고 경쾌한 한국형 댄스 음악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순정', '탄남', '비상', '괴란', '실연'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가요계 대표 흥성 댄스 그룹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코요태는 이를 기념하는 앨범 '리본(REborn)'을 발매하고 첫 단독 콘서트 '코요태 20th 이즈백'도 개최했다. 이후에도 레트로 댄스곡 '히트다 히트', 신지의 세미 트롯곡 '느낌이 좋아' 등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코요태는 유튜브 채널 '코요태레비전'을 통해서도 코요태만의 개성 가득한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SM, 신인 걸그룹 에스파 첫 멤버 윈터 공개

2014년 데뷔 '레드벨벳' 이후 6년만

SM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론칭하는 신인 걸그룹 '에스파(aespa)'의 첫 번째 멤버 윈터(WINTER)를 27일 공개했다.

SM은 “윈터는 올해 나이 만 19세의 한국인 멤버로, 뛰어난 보컬과 댄스 실력을 겸비한 만큼, 보여줄 모습이 기대를 모은다”고 소개했다.

SM이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는 건 2014년 데뷔한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이다.

그간 SM은 S.E.S, 소녀시대, 에프엑스(f(x)) 등 개성 강한 K팝 걸그룹들을 잇따라 성공적

으로 론칭해왔다.

데뷔 초입기에 들어간 에스파(aespa)의 이름은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ae'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에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형 기획사의 신인 걸그룹인 만큼 데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SM 연습생들 중 누가 이 팀에 합류할지에 대해 갖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준수, 댄스곡으로 컴백...내달 10일 '핏어팩'

리드미컬한 하우스 풍의 댄스 곡



가수 겸 뮤지컬스타 김준수가 댄스곡으로

돌아온다.

26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는 내달 10일 오후 6시 발매하는 새 미니앨범 '핏 어 팩(Pit A Pat)'의 타이틀곡으로 동명 댄스곡을 내세운다.

'핏어팩'은 리드미컬한 하우스 풍의 댄스 곡이다. 판타지적인 가사와 함께 김준수의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뮤지컬에서 주로 애절한 곡을 불러온 김준수지만, 댄스 실력도 이미 정평이 났다.

앨범에는 이와 함께 늦가을 감성을 갈게 파고드는 두 곡의 발라드 곡과 함께 지난해 첫눈이 오던 날 기습 공개한 '눈이 오는 날에는'까지 총 네 트랙을 담아낼 예정이다.

김준수가 앨범을 내놓는 건 2016년 정규 4집 '시그니처(XIGNATURE)' 이후 처음이다. 앨범이 아닌 싱글 '우리도 그들처럼'을 2017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온전한 앨범 형태라 눈길을 끈다.

씨제스는 “김준수의 이번 앨범은 요즘같이 모두가 힘든 시기, 음악의 힘을 빌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의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김준수는 최근까지 '엑스칼리버', '드라큘라', '모차르트' 등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해왔다.

11월 중에 온라인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뉴스스

엔시티→오마이걸, '플레이 서울' 1차 라인업 공개

'플레이 서울'의 1차 라인업이 베일을 벗었다.

서울관광재단과 KBS가 공동으로 기획·제작하는 케이팝 스타의 서울 탐방기 '플레이 서울' 측은 26일 출연진 1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라인업에는 그룹 엔시티(NCT), 오마이걸(OH MY GIRL), 더보이즈(THE BOYZ), (여자)아이들, 에이티즈(ATEEZ) 총 다섯 팀이 이름을 올렸다.

'플레이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케이팝 스타들이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서울을 대리 체험하는 프로

그램이다. 다양한 테마로 나뉜 서울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전 세계 팬들과 공유한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서울의 숨은 명소 찾기에 포커스를 맞춰 '인심할 수 있는 서울 관광'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플레이 서울'은 11월 중 'KBS Kpop' 유튜브 채널과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 'VisitSeoul'에 업로드된다. 내달 22일부터 3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2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이후 KBS WORLD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17개국으로도 방송될 예정이다.